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청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근권

지휘자·반주자를 위한 제3회 전국찬양대지도자 강습회

이번주 8월11일(수) 개강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대

지난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제3회 전국 찬양대지도자 강습회가 드디어 이번주 11일(수)부터 시작된다.

14일(토)까지 진행되는 금번 강습회에는 제주의도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인천, 용인,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2백 여명의 성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 중에는 강원도 삼척 천국문교회에서 혼자 올라와 참가하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도 있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참가자도 세 명이나 되고, 1회와 2회를 참석하고 금번 제3회 강습회까지 빠짐없이 참가하는 전도사들도 있다. 교과별로는 장로교인이 가장 많고 순복음교회와 감리교회 성도들도 있다.

찬양위원회에서는 본 교회 교회학교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교역자들이 무로로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충현의 성도들 중 지휘와 반주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찬양위원회(구내전화 259, 260번)로 문의하면 된다.

시 간	8월 11일(수)	8월 12일(목)	8월 13일(금)	8월 14일(토)
06:30	아침운동	아침운동	아침운동	아침운동
07:00	세면	세면	세면	세면
07:3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08:30	실기 개인예선 I	말씀묵상	중창강연대회	
09:30		실기 개인예선 II		
10:30			티타임	
10:30			토의결과 보고 및 토의토의	실문조사
11:00			성가합창문헌 I	제회보고 및 수료식
12:00	점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0		실기반반 I	실기반반 II	실문조사
14:00	개강예배			
14:30		휴식 및 간식	휴식 및 간식	
15:00	강습회 안내	실기반반 II	실기반반 IV	
16:00	특강 I: 말씀론	찬양론	조별토의	
16:30	찬양론	찬양론	조별토의	
1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18:00	휴식시간	발성법 참가 지도법 및 금요찬양집회	금요찬양집회	
19:30	수료식 예배			
20:30	교회음악의 위기	비디오 찬양강좌 1부 부흥회		
21:30				
22:00				

후반기 장학생 훈련·기도 8월 20-21일 홍익대전 / 학생 생활의례 오늘까지

도장성학회는 전반기 장학생 선발자 중 교회 출석 및 봉사하고 학교성적에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전반기 누락자와 신규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인정된 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장학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후반기 장학생을 신청한 일반 및 전제향 학생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8월 20일 금요일회를 시작으로 훈련 및 기도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후보자 전원 은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한 후, 기도원으로 이동하여 21일(토)까지 훈련 및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후반기 장학생 신청자 전원은 20일(금) 찬양강의회식 분당 강안 내석에 준비될 명함을 달고 분당 우측 앞의 지정된 좌석에 앉으면 된다.

교정전도회 춘천소년원 성경학교 내일(9일)부터 13일까지

그동안 뜨거운 기도와 더불어 성실하게 준비해 온 교정전도회 춘천소년원(신촌중학교)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개강된다. 춘천소년원 생활관에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4박 5일간 진행되는 금번 성경학교(강사: 서광진 목사, 감독: 김영수 성로, 운영: 박양덕 전도사)에는 춘천소년원 사역팀, 교정전도회 사역팀 및 임원인 중지원자들, 대학생 및 청년부 자원봉사자, 요별중장단 등이 일꾼으로 섬기게 되며, 성경학교를 통해 변화가 기대되는 현지의 원생들은 200명여에 이른다.

그동안 3회에 걸쳐 전제교회로 모이면서 틈틈이 준비해 온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원생을 전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일꾼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크신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해야 하겠다.

제2회 전국목회자세미나

성도들의 홍보·봉사 요망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도로 준비해 온 제2회 전국목회자세미나가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원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지원을 부탁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홍보 및 자원봉사자로 섬겨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홍보 대상은 성도 개인이 아닌 서울 경기 및 지방의 목회자들이며, 봉사 내용은 해당 목회자가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자체의 헌원이 허락하는 대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온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수고를 통해 금번 제2회 전국목회자세미나가 크신 은총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봉사로 동참해야 하겠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간충현> 8월 1일자 및 <기독신문> 8월 4일자 등을 참조하거나 교육국(전화: 552-8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도위원회 상반기 회계감사

전도위원회의 상반기 회계감사가 계속되고 있다. 각 지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래의 사항에 따라 감사를 받으신다.

기간: 1999년 8월 15일까지 / 시간: 매주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선교국 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시산표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예금증, 영수증출

1999-2000 겨울단기선교단 단원모집

철저한 훈련을 통해 선교 경쟁 파승키로
8월말까지 신청해야

교회는 1999년 12월 3일부터 2000년 2월 26일 사이에 총 8개월 77명의 단기선교단원을 각 선교지에 파송키로 하고 8월말까지 단원을 모집키로 하였다. 이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선교연구원 LMTC과정 혹은 단기선교훈련 과정을 통해 선교에 적합한 모습으로 훈련받은 후 파송할 계획이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에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금번 단기선교단원으로 선발될 대상자는 본 교회 세례교인으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LMTC 훈련생 혹은 집중 단기선교 훈련과정(10월 중 매주 수요일 2주에 배후에 실시될 예정)을 이수할 자 중 선교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자이다. 교회는 단기선교단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왕복항공비 및 선교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구내전화 350번)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파송국 및 인원, 그리고 사역기간 등은 오른쪽표와 같다.

국 가	인 원	목 적	사역기간
스리랑카	15명	단기선교	2000년 1월 14일-1월 24일
방글라데시	10명	단기선교	1999년 12월 9일-12월 21일
수단	10명	의료선교	1999년 12월 22일-1월 1일
수리남	7명	단기선교	1999년 12월 18일-12월 31일
몽골	5명	단기선교	2000년 1월 11일-1월 25일
인도	10명	단기선교	2000년 1월 19일-2월 1일
파키스탄	10명	단기선교	2000년 2월 1일-2월 13일
베트남	10명	선교훈련	2000년 2월 16일-2월 26일

* 항공사 사정에 의해 위의 일정이나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4차 학습세례식

배차	시간	학파	장소	세례자, 세례지킴자	교역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제1회	12시	기독교교회	국립	세례자	국립	국립	국립	국립
(후원)	15:00-15:50	(장학인목회)	31차	(장학인목회)	31차	(장학인목회)	(장학인목회)	(장학인목회)
제2회	12시	장학인교회	국립	국립	국립	국립	국립	국립
(후원)	16:00-16:50	(장학인목회)	31차	(장학인목회)	31차	(장학인목회)	(장학인목회)	(장학인목회)
제3회	12시	구립	국립	구립	국립	국립	구립	국립
(후원)	15:00-15:50	(여학생목회)	31차	(여학생목회)	31차	(여학생목회)	(여학생목회)	(여학생목회)
(후원)	16:00-16:50	문당	국립	문당	국립	국립	국립	국립
제4회	12시	성인목회	국립	국립	국립	국립	국립	국립
(후원)	16:00-16:50	(장학인목회)	31차	(장학인목회)	31차	(장학인목회)	(장학인목회)	(장학인목회)

법조인전도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법조인전도회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매주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법조계 관련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도 부탁드립니다. 법조인전도회에서 봉사하실 자매님이 계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시간: 매주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 12시 5분-12시 30분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성도님들은 전화(567-4774)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교육국 108호



김 장 인 목사

하나님의 숨은 역사

(이사야 45:14-17)

“...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느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속옥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숨어서 하십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5절)

사람은 드러나 놓고 떠돌며 일을 하다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역사하여 일을 성취하십니다.

고레스 왕은 소아시아 전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건설한 바벨론을 하루밤에 멸망시켰습니다. 이러한 고레스 왕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고소이아 전 지역이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도 멸망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고레스 왕이 자기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온다는 기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머리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애굽은 고대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한 문명국가요, 국창으로서 수많은 곡식을 가져다와 군량미로 쓰라고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구소이아(이집트)가 찾아 옵니다.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입구가 애굽이고 구소는 중간쯤에 있으면서도 몸이 달라서 고대 소입니다. 구소는 새끼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나라로 최고급 화장품과 향유와 많은 금은보배를 가지고 옵니다. 또 스마의 장대한 용사들이 와서 항복합니다.

그러면 바빌론 왕 고레스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웅이요 세계를 정복하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실패가 없이 착각 일무어 나갔습니다.

선민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바벨 국무총리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를 미워하였습니다. 모르드개를 죽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개에 아홉 죽옥인 지 조사하니가 유다죽옥입니다. 유대는 시드기 왕에게 멸망하고 그 남은 백성이 모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왔습니다. 하만은 고약한 사람으로 모르드개에게 절하지 않자고 미워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계책을 세우고 자기 집 뒤뜰에 50척이나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이면 하만은 모르드개를 거기에 목을 매 죽여 놓고 자기에는 에스더가 정한 들레날 잔치에 나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만은 모

로드개를 죽이겠다는 청원서에 제가를 받으려고 궁궐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50척 되는 나무를 세운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애를 쓰다가 사관을 불러 근자에 되어진 나라의 궁중일기를 읽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관이 궁중일기를 읽어 나갔습니다. 새벽 되여 오 무렵입니다. “아무날,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반역을 도모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니 결행 직전에 모르드개가 이를 적발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고발하였다. 왕이 이 고발을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다.” 여기에 이르러 왕은 “하마터면 큰일 난 뻔하였구나.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고 고발해 준 모르드개에는 무슨 상을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하여도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하구나.”

바로 그 시간에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겠다는 청원서에 제가를 받으러 궁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왕은 하만에게 상을 주고 싶은 자가 있는데 그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야 좋겠는지의 논하였습니다. 하만은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금님이 입으신 옷을 한 번 입혀 주고 임금님이 쓰신 면류관을 한 번 써주고 임금님이 타시는 마차를 태워 이 나라에서 임금님 다음으로 가장 바빠서 높은 사람으로 말경매를 잡는 마부도 삼고, 수산장을 다닌서 ‘임금님이 사형하시어 상을 주고 싶은 충신에게는 이렇게 대우한다’라고 광고하시던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라. 자기 바로 모르드개이니 그에게 그렇게 해 주어야.”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일 것이니 하라해 달라는 말도 못해보고 모르드개의 말경매를 잡고 수산장을 다녔습니다.

모르드개가 두 반역자의 음모를 보고 하 있을 때에 큰 상을 주었다더라 모르드개는 하만의 흉계에 걸려서 자기 장대에 달렸을 것입니다. 모르드개에게 죽을 상을 주지 않은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숨은 가운데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2. 하나님이 숨어서 역사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숨어 역사하십니다

“...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파낸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14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

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도전하는 자가 있을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한없이 모욕을 했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뭐냐? 이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험한 장사를 보내지 않고 소년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돌을 던져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2)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려고 숨어 역사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면 욕을 받아 다 함께 속옥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16절)

하나님은 믿음을 배반하고 의인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만류하기는 가능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숨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청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입과 금을 모든 신보다 낫는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못하고 임금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제사하도록 하든 어떻습니까?” 이리하여 이들은 왕의 제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민족을 불로아 죽우소서” 마침내 다니엘을 잡아 사자굴에 넣고 무죄를 단고 살아서 나올까와 같이 나서 부하하였답니다. 다음날 다리오 왕은 충신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까워 다니엘이 간신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관 하옵소서.” 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름이 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불화시켰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었으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다 해를 거치지 아니하였나니”(단 6:22) “문을 열어라.” 줄을 내려 다니엘을 끄집어 올려 보니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간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 하던 간신들을 모두 잡아다가 “사자가 입이 불렸는지 한 번 시험해 보라” 하고 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신들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사자들이 뜰어 먹은 것이 아니라 땅이 달기도 전에 파우러라 썩어버렸으므로 썩어 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환수를 심판하기 위하여 숨어 역사하십니다.

(3)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복을 주시려고 숨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17절)

아프리카의 여러 임금들이 제 발로 와서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당해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 간 유다 민족 중에 다니엘의 기도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범한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바벨론에 잡혀 온 내 민족이 죽음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가기가 지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하라하셨습니다. “네 기도를 이루어 주마.” 하나님은 의인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고레스 왕을 세워 유다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처음한 말이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아,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지어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천 가지가 넘는 보배들을 다 돌려 주어라. 그리고 성전을 짓는 비용도 주어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역사하시는 것은 선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선민의 구원은 육신인 아니고 지체없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악마의 온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영원한 행복과 자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민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숨어 역사하십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사물을 믿지 말고 불의한 세력의 앞잡이도 되지 말고 보이는 사람의 재산과 영광을 부러워하여 침을 흘리며 말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이리키는 사람도 되지 말고 숨어서 천지를 섬리하고 숨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믿 수 없으므로 숨어 계획하시고 숨어 역사하시고 숨어서 사물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기도 믿고 바로 계획하고 바로 말하고 일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권 목사

하나님의 후사

(로마서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의 회복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든 종류의 기쁨이 가득했던 에덴동산을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동산에서 죄를 지어 그 복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도 죄없이 순결한 영광, 곧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행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적인 상속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후사로 또한 후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점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들의 참모습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차레차레 드러날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후사

후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후사가 되는 것 역시 모든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몫이 아닙니다. 성경은 피조물이 곧 후사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사는 자연적인 출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혈육의 자손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나 자라하면 후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롬 9:7-8). 따라서 혈육으로 낳았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영적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만을 아니라 아삭을, 에서를 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후사는 인간 간의 공로로(갈 4:30), 율법의 준수로(롬 4:9) 얻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후사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후사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들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녀라”(골 3:10).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아멘!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신의 구주요 대속자요 주인으로 믿는 자입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후사의 기초입니다.

모든 후사가 동등

하나님의 후사가 된 모든 가족들은 다 동등합니다. 한 살짜리 아이가건 성인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후사됨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만물의 후사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라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 “그러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 3:21).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후사요(골 3:7). 그 나라의 후사요(약 2:5), 약속의 후사요(히 6:17), 의의 후사(히 11:17)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생명의 은총을 얻을 후사입니다(벧전 3:7).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후사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한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받았습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사들은 하나님에 선한 시도로 모든 선한 것들을 얻게 될 것

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위대한 기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업을 결코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은 확실히 보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업과 우리의 기업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만물 안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당신에게로 연합시키시고 우리의 기업을 보충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인도할 기도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그 기업의 온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함께한 후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단단히 묶어 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의 함께하기를 인하여 더욱더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영광을 위한 고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본질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준비시키십니다. 기쁨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쁨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고통도 우리가 일용 기쁨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현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할 영광, 곧 다가올 그 기쁨을 바라봅시다.

땅의 해방에서 하늘의 해방으로

주님 안에서 가족 되고 친구되신 사랑하는 종현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도 우리들이 이 축복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좇읍시다.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가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는 바로 우리 나라의 일체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를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땅에서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의 본질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준비시키십니다.

기쁨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업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고통과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후사들에게는 어떤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후사됨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약속 아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히 6: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만물을, 곧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때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합니다. 가난하진 부자진, 크진 작진, 약하진 강하진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후사들은 동등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후사

우리의 기업은 신적 기원을 가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로써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특별한 우리의 특권에 대하여

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성도들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축복, 그 영원한 기업은 안전합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벧전 1:4). 만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가 후사됨의 시금석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담과 에돔이,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공통이아말로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기쁨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한 가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국내외국인선교부 여름수련회



우리 교회 국내외국인선교부(이하 외선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2박3일 동안 여름수련회를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렀다. 이번 수련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몽골, 방글라데시, 중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 6:35)라는 주제로 이슬람 목사, 김진식 목사, 김영대 선교사가 강사로 수고해주셨다.

수련회 첫날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굵은 빗줄기 속에

서 진행된 수련회였던 야외활동을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따뜻함이 넘쳤다.

프로그램은 매일 1시간 30분 이상의 성경공부, 특강, 부흥회, 자곡(自曲)을 위한 기도회와 찬양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찬양시간에는 서로의 말과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역력히 증명하였다.

사랑부실에 모여 공동체훈련을 하던 외국인근로자 속에는 담임목사님의 모습도 보였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은 외국인근로자들과의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은 전도한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차량 지원과 나라별로 모여 기도하며 성경공부할 수 있는 공간, 통역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번 수련회에는 총 97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으로 2명의 근로자(회교도)가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수련회 기간 내내 54명의 봉사자들은 약천후의 날에 개종해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차량봉사로 수고하였고, 좀더 알찬 식단과 간식을 위해서 식당 관계자들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직 확신이 서지 못해 관철된 주님을 모시지 못한 근로자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갔다. (오대영 선교전도사)

민족 복음화

전도의 새로운 해법
'관계전도'

지인(知人)의 마음을 열어 복음전하기

지난 7월 10일 4교구는 새가족 초청전도잔치를 열었다. 이 전도잔치의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관계를 통한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전도위원회와 몇몇 교구는 앞으로 관계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을 전도의 새로운 해법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행할 방침이다.

그리하면 관계전도가 무엇인가? 노방전도, 캠퍼스전도 등 소위 '거리전도'도 아니고, 일정한 날을 정해 놓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잔치를 벌이는 '홍등잔전도'도 아니다. 물론 거리전도 및 홍등잔전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필요가 있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 거리에만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단련한 기술을 통해 전도인 딸들리기의 명수들이 되었다.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건 이제는 결코 쉽게 마음을 열지 주지 않는다. 일단 낯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홍등잔전도를 통해 교회에 온 사람들 대부분은 곧 그 다음 주부터는 발길을 끊는다. 물론, 그럴 만한 개인적 사회적 이유들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열리지 않는 아파트 문고리를 잡고 무작정 시간을 보낼 수만은 없다(물론,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열심히 다녔다. 능력이면 전도하는 성도들도 있다). 이제는 '지속적인 사람들'을 통한 관계전도가 전문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가능한 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인들을 늘려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신한 이웃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이 사정도 나라 주교 부원기도 갔다 주교 청소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중 대안자를 정해 마음을 열고, 전도를 위해 꾸준히 장기적으로 노력하며 일정한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다.

전도는 환상이 아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복되다'고 하시는 대신 '복음을 듣고 산 믿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다. 영혼을 사방하는 뜨거운 기도와 다혈이 소금의 땅이 흘러져야 하겠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언어이 진행되는 동어촌 전도 사업으로 총현의 여름은 더욱 뜨겁다. 교구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준비하여 전도대를 편성하고 사역지로 파송하고, 남은 교구식구들은 기도로서 이들을 후방에서 지원한다. 전도대가 펼쳐지는 사역은 주로 축호전도, 이미용전도, 의료전도, 성경학교, 초청잔치를 통한 부흥회이다. 전도대의 사역으로 복음을 접한 주민들이 초청 잔치를 통해 결신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현지 교역자의 사역 요청이 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다시 찾은 지역에서 진행된 사역에서는 주민들의 마음이 한결 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지속적인 전도의 필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결신자들에게 대한 관심과 기도를 통한 교제로 이들이 양육되어가는 것을 돕고자 하는 열의들도 생겨나고 있다.

모란에 모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심는 우리 전도인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민족 복음화에는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드러지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결과 산출'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축호전도

강원도 원주 초초면 둔둔리 새빛교회로 사역을 간 대원들은 4개월로 나뉘어 둔둔리 일대의 가정을 돌며 한 집 두 집없이 전도하였다. 저녁에는 교회에 나오도록 초청하여 예수님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눌 때 작년에 이어 또다시 많은 곳에서는 마을 주민들 가운데는 우리들을 믿어 알리고 손을 잡으시며 좋아하시는 분들을 겹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하시려고도 모자랐으며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동요의 제사를 주관하는 한 가정에 들렀다. 할아버지는 술에 만취되어 주무시고 할머니는 다리가 부러져 밖에 나오시지 못하고 계셨다. 할머니께서 우리들을 알아보시며 "또 수고하셨습니까... 난 이래서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힘겹게 마루로 나오셨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무엇하나 오셨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니 섣불리 대답을 못하셨다. 그리고 예배드리기를 거부하시며 함께 기도드리라고 해서 두 손 꼭 잡고 기도를 드리고 아쉬운 발길을 되돌렸다. 그러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 확신하며 돌아온 전도사역에 보람을 느낀다. (16교구 정경희 집사)

단기선교 소식

1. 케냐 단기선교단 어제 출발

총 15명으로 구성된 케냐 단기선교단은 정은희, 고은빈 선교사가 사역하는 케냐와 예도토로키를 방문하여 이라리아 사역 및 전도사역, 의료사역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 지역은 전기와 물 공급이 되지 않고 탕트에서 잠을 자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 교회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 주세요)

- 하나니케만 영평되는 사역이 되도록
-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충만하도록
- 정은희, 고은빈선교사와의 협력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도록

2. 파키스탄 단기선교단 9일(월) 귀국 예정

3. LMTC(평신도선교훈련원) 해외 단기선교훈련으로 지난 7월 13일에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현재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오영희, 주진희 장매는 본 교회 국내외국인선교부에 출석한 바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가정에서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등의 사역을 하였으며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성경학교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마차중앙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성경학교를 정자와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입구와 예배실을 오객방선 등으로 장식하여 어린 친구들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 첫째날 오후에는 축호전도팀과 함께 성경학교 초청장을 돌리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다음날 아침 쏜은 비는 계속 내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어 친구들이 얼마나 유가 하는 열매에 쌓였다. 그러나 이를 뒤집고 이른 시각부터 어린이들과 중등부 학생들이 2, 3명씩 오더니 교회예배를 드릴 때는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성화탄 들기, 분반공부, 미니올림픽, 물놀이와 셋째날 있었던 인형극 '순이의 순교' 관람 등을 통해 친구들의 순수한 눈물과 진지함을 발견하고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지 않은 그들의 순수한 영혼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 열매의 재목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2박3일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3교구 신종기 집사)

전도 초청잔치



7월 26-28일 충북 제천 금성산로교회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농어촌전도선교사 초청전도를 하면서 만난 67세의 김복분 할머니가 마지막 날 가진 전도잔치에 나오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약속하였다. 또 81세 되신 김경례 할머니께서도 성경학교 선생님의 인형극과 목사님의 하나님께 나오시라는 말씀을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죄의인이고 회개하였다. 그리고 이제 늦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셨다. 그리고 이분의 81세 박경례 할머니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전래한 복음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 결신하는 것을 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이분들뿐 아니라 복음을 접한 다른 분들과 특히 어린 생명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성령의 역사로 썩어 나고 열매 맺힐 것을 확신하며 기도한다. (17교구 현영희 집사)

사실은 그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권 상현(목사, 중동부 지도)

저는 이번 여름에 두 번의 여름성경 학교를 경험하였습니다. 그중 지난 주에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에 소재한 새중앙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그곳은 열 사람의 땅이 내 몸에 묻어 나는 비좁은 예배당 건물, 샤워실조차 변변하지 못한 열악한 시설, 교육 기자재라고는 몇 년을 사용했는지 잘 파악이 안되는 해도 한 가지, 고등학교 학생, 배가 부른 임산부를 포함한 청년 몇이 교사의 전부이며 그리고 고등학교 대당 열은 너무나 무기력한 싹들 몇 대가 고작인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개척 교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를 받을 만한 환경이 못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의 간절한 눈망울, 율동 하나, 찬송 한 곡, 말씀 한 마디라도 가깝게 놓치지 않으려는 진지한 태도, 새로 받은 선물, 손에 쥐어 주는 작은 간식 하나에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폭우로 물난리를 만나고 강중에 버릴 수밖에 না 다 날아가는 와중에도 교회당을 찾는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고 동네 할머니를 모셔

다 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는 울어버리고 마는 어린 소년과 우리의 가슴을 뚫릴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을 데리러 차량을 운행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사오기 위해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어린이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시기에 슬피 울던 청년을 붙잡고 상담까지 하는 등 도대체 몇 가지를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목회자의 열심이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이지 은혜를 수밖에는 없는 환경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 기간 내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그렇게 감사했고 이들도 다 믿게 되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또 부끄럽고 서툰 것들이지만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도시의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비좁은 건물, 열악한 시설, 형편없는 교육 기자재, 없는 교사 때문에 근심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감사, 그 선물, 그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요, 초등부가 좋아요

성향 옥(집사, 초동부 교사)



작년에 받았던 교육내용보다 올해의 교육이 더 알차고 더 풍성하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여가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람마다 각기 은사가 한 가지 이상씩 있다고 하는데 나의 은사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고부터 어린이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만약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볼 뿐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 지금은 가까이 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아이들이 옆에 있을 때 그들이 부디 예수 그리스도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올해에는 여름성경학교때 세속식이 있어서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여름에는 일박을 하니까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성경학교 끝난 후에는 더 친해져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더 즐거워진다. 성경학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모이는 교회학교도 아주 좋다. 조금만 틈이 나게 되면 시장 이상으로 시끄럽지만 그 가운데 질서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닐까. 교회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교회학교가 더 실속 있고 체계가 바로 세워짐으로써 실속 있고 알찬 천국일꾼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름수련회를 다녀와서 흔들리는 믿음, 말씀과 기도로 꼭 묶고 돌아왔어요

이유니스(중동부)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장애인을 통해 '감사와 사랑'을 배웠어요

중동부 지체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간의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다리던 수련회날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더 앞서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하여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 선택특강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녁식사 후 첫 부흥의 시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김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이제껏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나의 행동을 눈물로써 회개하게 되었고 동시에 표현하지 못할 기쁨과 감동이 내 마음 속에 가득 찼다.

다음날 아침 QT와 분반공부 시간은 예레미야의 뜻을 일깨워 주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늘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김진식 목사의 특강 후에 마음 열기 등의 게임을 통하여 각 조들은 더욱 하나가 되었다. 둘째날 부흥회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형준 목사님의 설교와 짧은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고백하고 고백한 문제들이 나의 영성의 미약하고 공격받기 쉬운 모습이었음에 함께 동행하는 친구의 사랑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마음에 깨닫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은혜로 충만한 분위기는 산상기도회에서도 계속되었다.

마지막날 특강의 남은 프로그램이 끝이 나고 폐회예배로 중동부 여름수련회는 겨울수련회를 기약하며 끝이 났다.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바쁘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학교 생활 속에서도 친구와 공부가 우선이 아닌 하나님이나 우선임을 알 수 있었다. 회고하고 후련해진 나의 신앙을 말씀과 기도 안에 품고서 묵어보고 그런 친했던 나를 발견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찾게 되었다. 이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장애인시설에 처음 갔을 때는 솔직히 두려웠다. 하지만 사서지 친근해져서 나중엔 서로 모여서 놀았다(이재민). 이번 수련회는 너무 힘들었다. 후회도 했다. 피로였다. 하지만 장애인 친구들도 사귀고 같이 놀면서 재미있었다. 다녀와서는 흐

뻘었다. 감격했다(최지현). 내 생애에 고생이라곤 지금껏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것 같다. 매일 조금 내 뒤에도 꿇장만 부리고 열면 먹거리였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거기서 해서 그런 나쁜 중세도 없어지고 제일 먼저 임파가 기뻐할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나는 장애인들이 다가오면 피하고 그랬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장애인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란 걸 느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 성격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뜻깊은 수련회가 되었다(정지현). 우리 교회 사람부 사람들을 볼 때면 피하곤 했었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보통사람처럼 느껴진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보다 더 맑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주님 전에 좋은 것들 주셔서 감사합니다(유미나). 이번에 내가 간 곳은 시설이 좋아 편했는데, 다음엔 더 시설이 나쁜 곳에서 봉사하고 싶었다(김재현). 내가 노력해서 장애인에 관한 수 있다는 것이 기분 좋았다. 비록 시설은 제일 안 좋았지만 고생한 만큼 하나님께 복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한대(김재현). 그곳에 가기 전에는 겁부터 났고 지루했다. 하지만 막상 가서 봉사를 하다보니 그분들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라는 생각을 했다(최지현). 나의 장애인 짝은 신발

신은 것을 아주 싫어해서 자주 신겨 주어야 했다. 이 짝과 산책하다가 그 아이가 넘어져서 피가 조금 났다. 내가 손을 아주 고통 잡아서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너무 미안했다. 항상 불평만 하던 나! 이제 하

나님께 감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다(조혜진). 내가 정상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최지현). 나는 다른 아이들의 짝에 비해 정말 조금 착한 짝을 만났다. 앞으로라도 계속 친절해 주고 싶다(이미진). 장애인 시설에서 좀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다(유미나).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박지현). 바를 먹어 줄 때 너무 좋아하고 손을 꼭잡고 놓지 않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최지현). 부모님이 억지로 보살피는 것보다, 다들 변하는 모습으로 온 좋게했다. 그랬다(최지현). 수련회를 다녀온 지금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다(이미진). 휠체어를 밀고 자갈길을 힘들게 올라가는데, 그냥 편히 있어도 그만 하는 내 짝 장애인에의 모습이 너무 미웠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때 즐겁게 뛰어다니지 못하는 그 예를 보니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이번 장애인에 내 짝 장애인에의 다리를 물려주었다. '어떤 다리가 이따서 주물러 줘야 해요'하며 영복이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자신도 장애인인면서 그렇게 보살피는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김재현).



교회교육 시리즈 5

교회교육: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제의식
2. 신실성이 문제이다
3. 교회교육과 신실한 믿음
4. 교회교육을 위한 신앙교육
5.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동안 우리는 교회교육의 위기 속에서 작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열렸던 '99 교육세미나는 큰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문제는 '많은 말과 적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면 해법도 있고 한 걸음을 떼면 열 걸음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관성의 법칙'을 따라 안일하게 흘러가는 것이 문제다.

교회학교 교육의 핵심은 사람이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 발로 뛰는 교사, 제자를 붙들고 영영 울 수 있는 교사, 제자들의 이야기를 밤새껏 들어 줄 수 있는 교사, 졸리운 눈을 꾸미며 함성을 준비하는 교사가 핵심이다. 이런 교사들이 나와야 하고 또 나올 수 있도록 교회가 할어야 한다. 교회학교 교사를 양성하되 좀더 전문성을 갖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적절한 배치해야 한다. 시공간상의 문제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좀더 충분한 시간 동안 좀더 충분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검토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신앙교육이 없는 가정교육은 완전한 실패다. 가정교육은 곧 신앙교육이어야 한다. 매일 만나는 학부모가 못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학교 교사가 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소중한 일에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나면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예수 믿음, 예수 사랑, 예수 소망으로 확 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조만간 우리 안에서 확인되고 한국 교회 안에서 확인되는 날을 향해 힘껏 달려가야 하겠다. [편집]

주님 뜻 따라 한걸음씩

이경렬, 임정희 집사(가브리엘찬양대원으로 봉사 중 3월 23일 뉴질랜드로 이민)

고국을 떠나온 후, 사랑하는 총현교회에 소식을 전하게 된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민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타의에 의해 물러나 이 먼 곳까지 와야 했고, 잠깐 방문하던 것과 다른 차원에서 4년 전 먼저와 있던 자녀들과 다시 적응해야 했고, 여행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정착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고난의 종교,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던가요. 한국에서는 가장 영광스런 새벽찬양대(가브리엘)에서 봉사하게 하고요 이곳 뉴질랜드에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와 고난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인간적인 봉사와 헌신보다 말씀과 믿음이 앞서야 한다는 말씀을 붙들고서 이곳에서 상처 난 영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현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나쁜 의미의 신의식(?)을 버리고 사랑과 공경함으로 가득한 교회로 계속 자랑하기를, 또 이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그 담을절이 계속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이민사회의 사정으로 분열의 아픔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 가운데서 저희는 예수님의 회생과 조광당성을 기억하면서 회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현의 예배당에 또 쓰여 있는 '이제 내게 주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의 힘에 의존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의 말씀을 주는 날까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곳으로 떠나올 때, '98 연합찬양대 메시야 CD를 90장정도 가지고 와서 나누어 주셨는데, 받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 1부예배시간에 찬양대석에 앉아 본당 유리창 넘어서 어두운을 깨치고 떠오르는 빛을 보는 그 축복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가장 작은 자가 주님의 기록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총현교회

나 성애(제사)

1994년 12월, 우리 가족은 직장을 여전히 인턴에 둔 채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제 교회로 가야 할까?' 당시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총현교회를 준비하고 계셨다. 1995년 1월 첫 예배에서 우리는 조금 이른 시각에 예배당에 들어섰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나는 그날 아침,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않은 커다란 헌신의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날 이후, 방학 중에는 새벽기도회에도 나가고 주일에는 저녁 찬양예배까지 빠짐없이 드리게 되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옥 같은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다. 그리고 막연하게 느껴오던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체험하게 되었다. 다음 주일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아들이 찾았다는 성전 뒤편을 벽한 기대감으로 떠나오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간헐적 체험하면서 나의 영혼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간헐적 목마름이 있었다. 기도하고 싶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도처소가 있었다. 교육관 옥상까지 서서구석 찾아왔지만 호젓이 앉아서 하소연도 하고 때도 못 만난 곳이 보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나의 마음을 나눌 이웃이 없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나는 아침마다 부르짖게 되었다.

기도에 대한 첫번째 응답으로 95년 1월 첫 주일부터 우리는 중동부 가족이 되었다. 그곳에는 내가 찾던 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선생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지요? 지난번 기도제목은 해결됐어요?' 침침을 나누거나,

침침을 담으면서의 나눔도 나를 가슴 벅치게 하였다.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 아이들과의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배우며 나누는 말씀도 목마른 나를 축복하게 적서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1년 여 두반석 치르는 여름과 겨울순회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밤이 맞도록 나누기에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작은 공동체 속에는 또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만남의 과정 속에서 주일 성수며, 말씀 독송, 가정 예배 등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이 조금씩 실천되기 시작하였다.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응답은 도서관에서의 신앙서적들 속에 있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편을 주실 거예요?" 원래 독서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별미중의 별미였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응답은 1998년 4월부터 드리게 된 주일 오후 3시 기도회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인간도 없듯이 완전한 교회도 없지 않을까?" 지면 관개상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총현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자녀 및 직장 관계 등으로 이곳 인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총현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인턴에서 나성에 올림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

김은양
(집사, 2교구)



먼저 총현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여름철의 사고를 읽고 들으면서 늘 기도했던 일들이 내 아들들에게 일어나다. 청천벽력파도 같은 비로써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기에 다행이구나 ... 그래도 내게는 아들, 딸 두 아이가 남아 있지 않은가. 다른 누구네의 외아들이나 어느 누구네의 아주 소중한 아들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며 일출을 깨울때 건드리 했지만 기어이 절규하며 오열하고 실신하는 모습으로 신앙인의 의연함을 보이지 못했음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베세대를의 어미소를 생각하며 공손히 순종하며 성유를 보냅니다. 성유이는 아는 모든 분들은 이제 성유이를 맞이하 되셨지요. 성유이는 '메멘 새를 도래하는 골짜기'에서 즐겁게 살 것입니다. 성유이를 생각하며 오셔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성유이의시

위대하신 그분!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나의 하나님.
파란 미소를 올려다보며 멋진
환희의 미소를 보냅니다. 그분 계신 곳에
효종을 잠시 맞게 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
매력이 곳곳에 넘쳐도록 명명해 놓으신
위대하신 그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 그분의 신자됨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지난 7월 21일 사교사로 주님 품에 먼저 간 조 문성용 군의 가족을 위한 계속되는 기도와 사랑의 교통을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지혜를 소식

영어부

우리 아기를 주일엔 영어부로

세상이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선생님들은 아가들의 영어부 예배 참석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주일마다 예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며 아가들을 기다리시는 선생님들, 1부, 2부 예배에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반의 선생님들은 금기가 눈물을 보셨다. 선생님들의 마음은 모두 생기가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과 좌우 실주에 발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어부 아가들! 주일 영어부 예배 잊지 마세요. 선생님들! 힘 내세요.

(임삼욱 통신원)

사랑부

"기도"

지난 주일에는 기도예에 대해 함께 공부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너무나 기쁘고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비디오텍을 통해서 기구할 것만 간단하게 아뢰는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기도 응답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도 잊지 않아야 함도 배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우리 학생 중에는 직접 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들이 구하는 지 구하지 않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재영 통신원)

3교구

복음 전파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5지역 남성구역

5지역 남성구역 식구들 6명이 7월 30일 금식 집사님 댁에서 모였다. 전도하는 생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5지역에서는 복음 전파 대상과 방법,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조건들을 전지하게 논의하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는 남성도모임을 바라볼 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5지역을 사랑하는 뜨거운 관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8월 모임은 넓은 잔디가 있는 곳이 될 것 같다. 온가족이 모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꿀 계획이다.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져 복음의 사명을 한 번 더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5지역에서 아직도 남성도모임을 몰라 못모이는 형제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같이 동참하십시오. 반란다(고송근 집사: 3461-7431).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셔서 5지역 남성구역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함이 계속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미경 통신원)

9교구

14명 영혼이 주께로 나와 발인 천국 잔치



잔치도 정선교 북면 구절리 구절중앙교회로 농어촌 전도 활동을 다녀왔다. 도약 예배 후 우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들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곳에 구원받고 택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2박3일 동안의 전도활동도 들어갔다. 우리가 계획한 주일 사역은 전도집회와 성경교회를 하는 것이었다. 구절중앙교회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없고 교회학교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서도 많은 격려를 하였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지혜를 소식

우리가 도착해 보니 아이들이 6명이 와 있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깊은 곳 외딴 집에 있는 아이까지 찾아 데우고 와서 오후 5시에 성경학교 개강예배를 드렸는데 모인 어린이들은 모두 33명이었다. 찬양과 송영말씀 시간에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따르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축조전도 때는 가지고 긴 영양제와 비누를 나눠드리고 전도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의사 남편을 초신자 부인이 권유하여 우리 사역에 동참하여 의료 전도를 위해 예소는 놀라운 일도 있었다. 밥부터 비가 내렸지만 둘째날 전도 활동과 봉사활동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미용팀이 합류하여 주민들에게 손과 키트를 해드렸고 경로잔치를 준비하는 봉사팀의 손길도 바쁘게 움직였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은 비를 맞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구절리 주민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그들의 종 되었음을 보여 주는 성직의 자세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둘째날 오전의 성경학교공부를 마치고 미니올림픽을 했는데 동네 주민들도 오셔서 아이들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저녁집회 때 결산의 시간에는 참석한 새로 오신 14명이 모두 결신하였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는데 이곳 구절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이번 전도집회와 성경학교를 계기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정국원 통신원)

14교구

2지역 남성구역

예수님만 높이는 사랑의 공동체



14교구 2지역의 남성구역의 7월 구역예배를 7월 29일 저녁 7시 30분 감만수 집사 직장 사무실에서 드렸다. 10명의 식구들이 모두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천국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구역장이었던 김홍기 집사의 꾸준한 정성과 헌신으로 남성구역 식구들이 사랑으로 동지처럼 금년도 구역장이인 이정택 집사의 기도와 열성과 사랑의 수고로 모든 구역 식구들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하고 예수님을 따라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구역예배마다 그간 참석하지 못했던 식구들이 한사람씩 동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에는 함께 참석하여 서로서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교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매달 첫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에는 참석했던 식구들끼리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사랑을 나누고 있다. 세상적인 일로 소홀해지기 쉬운 구역모임에 서로들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된 구역식구들은 이제는 사랑의 열매가 되어 되고 있으며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다짐한다.

(14교구 통신원)

15교구

영적 싸움터의 군사들

우리 교구 농촌전도의 현장은 작년 사역지였던 원주 반석교회, 각 분교별로 지난해에 이어진 전도를 생각해서 보완하고 준비하여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담자"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 및 주민초청전도 집회를 가졌다. 역시 같은 비를 아랑곳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수도 없이 왕복하며 공급했던 전도팀, 색색의 풍선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부자와 나사로' 성경을 여러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여 시청각교육을 위해 힘을 쏟았던 교사님들은 3월에 되는

날에는 폭도 쉬고 얼굴도 붓고 무릎에는 파스를 붙이고 있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지원하니 이미용팀은 미리 봉사한 곳에서 쉬지도 못했다. 다시 봉사팀에 합류하여 피곤이 쌓여 있음에도 미소와 친절을 잃지 않았다. 침실들은 건강 상태를 컴퓨터에 입력하며 자상하게 카운셀링 하는 모습들이 진지했다. 이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취약한 재정과 식사도구, 취사장비에도 불구하고 식사와 아이들의 간식까지 먹이려고 하고 수고하는 식사봉사팀의 무릎에도 역시 파스가 붙어 있었다. 모두 영적 싸움터의 열광력은 군인의 모습이다. 평소 주일에 학생 10명이 모이던 것이 성경학교에 36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전도에 이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지원, 양육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여름성경학교가 되었다.

(한옥성 통신원)

17교구

천하를 오란게 한 사역자들



7월 8-9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예상초 충남 예산군 광시면 마사리교회로 전도할 인원이 20명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33명을 합류케 하셨다. 마사리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렸다. 김동성 목사님의 힘있는 설교 말씀과 이 지역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셨으니 만나는 마을 주민마다 결실을 맺게 하소서." 전도팀들은 90가구에 200여명되는 6개 마을에 약을 지어 분산해서 전도전략을 세웠다. 이미용팀은 교회 아래 한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송향자 전도사님도 함께하여 늦은 시간까지 전도에 열정을 올렸다. 저녁에는 8명의 성도와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한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드렸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아이들조차 없는 마사리에 복음의 씨를 뿌리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드렸다. 미국의 목회자라리 뿌리치기 무브먼트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역을 띠어 정착하신 마사리교회 목사님은 주께서 이 지역의 영혼을 구하라고 보내 주신 목사임을 믿는다. 새벽기도회 시간임을 알리는 집사님의 외침에 새 날을 맞았다. "오늘도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라." 이곳의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겠!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새로운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저녁사역을 마친 마을주민이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였다. 이때를 놓치려다 열매 얻으신다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는 권사님의 모습에 참으로 아름다웠다. 때가 되면 지 아니되든지 씨를 뿌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 모든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사랑과 전도의 사랑에 불타고 있었다. 전도를 다 마치고 평가회를 가졌다. 모든 사역자 한 명 목소리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였다. 정말 우리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3시간이나 함께 말을 들으며 주어진 끈기있게 설득하여 마침내 교회로 인도하였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그대로 확고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돌아와서 전도자가 또 다시 전화로 실행하며 문안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연결하여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였다. 마사리교회에 사두하시려는 평경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마치 천하를 요란게 하는 사역자"들로 변화시켜주시길. 주님의 사랑에 빛난 자 되어 있어 웃고 있기 주면서 부르신 지의 부름에 합당함 있어 이끌어 줄 함께 기도하였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떨가게 하려는 사명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다.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정신지 집사)

구분	시간	장소
주요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신, 목, 수, 목요일 제외)	본당
	IV 오후 1:00(3월 2주 제외)	본당
	V 오후 3:30 (화요일이 드림)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목회관 4층(Central)
찬양 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 예배	12:00 (11:00 이후 7:30)	본당
금요일 예배	오후 7:30	본당
주목기도회	오후 4:40	본당